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1년
3월 15일
창간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6 포스코더샵 1304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전 · 현직 아나운서 큰 소통의 장 마련

창설 20주년을 맞아 한단계 도약 위한 첫발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김동건)은 3월 15일 한국의 言論史를 대변하는 원로 아나운서,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전직 아나운서, 현직 아나운서 간의 정보 교류와 방송문화 창달을 위해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를 계간지로 창간했다.

3월부터 계간지로 15일자 발간
김회장을 필두로 작년부터 준비 착수

전 · 현직으로 편집위원 8명 구성
- 정경래, 김규홍, 이해옥, 박민정,
이형균, 이규원, 강재형, 이현경

지금까지 만들었던 소식지 형태로는 기록에 한계가 있던 터. 클럽 창설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정리할 겸 한



▶ 지난 1월 11일 회보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의 왼쪽부터 이해옥, 김규홍, 박민정, 황인우, 정경래

단계 도약을 목표로 회보를 창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작년 말부터 김동건 회장을 필두로 김규홍 부회장과 박민정 사무총장, 이해옥, 황인우가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 지난 2월 14일 강남구청에서 간행물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는 정경래, 김규홍, 이해옥, 박민정, 이형균, 이규원(KBS), 강재형(MBC), 이현경(SBS)을 편집위원으로 위촉, 앞으로 매년 네 차례 계간으로 (3, 6, 9, 12월) 각월 15일자로 발행해, 회원들과 국회, 정부기관, 방송 유관단체 및 기관, 각 대학 도서관 등에 배송할 예정이다.

알림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는 회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사 제보는 물론 자신의 근황과 경조사, 그리고 시, 수필, 그림, 서예, 사진 등의 작품을 (사)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으로 보내 주십시오.

특히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제작과 발송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 / 간 / 사

우리말을 지키는 아나운서 결속의 구심점 되기 바란다



김동건

(사)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한 나라의 품격은 '말'로 정해진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저속해진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나운서는 바른 말을 사용함으로써 무게 있게 우리말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품위 없이 어떻게 한 나라의

어느 집단이든 화목하면서 질서가 있고 지킬 것은 지키는 가운데 우애가 돈독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모범을 보이고 후배들이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전 황우겸 고문님이 주축이 되어 '한국아나운서동우회'를 출범시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현직 아나운서들도 포함한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에 사단법인의 틀을 갖추어 우리 곁에 뿌리내렸습니다.

저희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아나운서의 권익 옹호와 발전은 물론 아나운서의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언론과 몸집에 비해 회보의 창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한단계 도약하여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선후배 간의 결속에 상징적인

회보 창간을 계기로 더 큰 발전 기대

'사람이 곧 방송' 몸과 마음 닦아야

모국어 지키기 수 있겠습니까? 아나운서는 겸손함과 솔직함이라는 덕목을 지니고, 늘 공부하고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모를지 '아나운서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운서는 한국 방송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이 존재하는 한 아나운서의 영역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방송 세태는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말초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한 직업이지만, 끊임없이 인격을 도야하고 전문성을 쌓으며 더욱 화합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곧 방송'임을 일깨워주셨던 존경하는 아나운서 선배님들로부터 비롯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품격은 말로 시작

우리말 닦는 노력

끊임없이 공부하며 더욱 화합해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반을 닦아주신 아나운서 선배님들과 동참해준 후배님들께 다시금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전하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사업에 앞장

2009년부터 이주여성 위한 '명품한국어' 수업 실시



▶ 박민정 사무총장이 동작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게 '명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1주일에 2번씩 1시간 30분간의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학기에는 매주 금요일 강의를 최화숙(전 MBC)이 전담하고 있다. 한편 이중은(전 CBS) 회원도 작년 8월부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속으로 우리말 강의를 해 오고 있다.

지금은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지만, 지난 2009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작구청의 (사)한국

동작구청과 고양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

아나운서클럽 담당 '명품 한국어' 시간을 한국어 교육의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한편 MBC 아나운서실에서는 2010년을 보내며, 12월 18일 서울 필동 남산국악당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MBC 아나운서 낭독회'를 열어, '재능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 사업에 앞장서기로 하고, 2009년 9월부터 이주여성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유혜선(전 KBS), 박민정(전 MBC), 김선희(전 MBC), 황인우(전 KBS), 권혁화(전 MBC) 등 5명이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동작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몽고, 중국, 일본 등의 이주

SBS 손범규, 제14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취임

취임포부 '계간지 아나운서저널을 월간지로 발행하겠습니다'

신임회장장 KBS 한상권 MBC 김원태 CBS 최정원 FEBC 김성운 PBC 김부궁 tbs 김병훈 OBS 유형서 SBS 박광범

SBS 손범규 아나운서가 KBS 성세정 회장의 뒤를 이어,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2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되었다. 취임 일성으로 우선 계간지였던 '아나운서저널'을 한달에 한 번 발행하기로 하고 분주히 작업

중이다. 한편, 각 방송사 협회장에는 이달 안으로 KBS 한상권, MBC 김원태, CBS 최정원, FEBC 김성운, PBC 김부궁, tbs 김병훈, OBS 유형서, SBS 박광범 아나운서가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이 걸어온 20년

80년대 후반 아나운서 동우회 - 1991년 3월 한국아나운서동우회 - 1996년 3월 한국아나운서클럽 - 2005년 5월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1991년 '선배가 주는 상' 제정 '아나운서클럽상' 으로 발전적 개명 2003년 장기범상 제정 ... 이계진 회원이 기금 쾌척

아나운서 복지증진 방송문화 발전 도모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아나운서 직종의 육성·지원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방송 관련 종사자, 현역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경력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우리의 목표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전·현직 아나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는 국민이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아나운서 직종의 육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한국의 방송문화 발전·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입니다.

강찬선 초대 회장에 이어 1991년, 제2대 황우겸 회장의 '한국아나운서동우회' 출범



▶1995년 신년 교례회에서 뒷줄 왼쪽부터 김규홍, 한경희, 길종휘, 이광주, 김두석, 김재익, 김승한, 최두현, 박찬숙, 최만린, 오남열, 정경수, 김인권, 김재영, 유필기, 김주환, 박중세, 전영우, 이병열, 김무중, 정경래, 우제근, 최계환, 강찬선, 황우겸, 전응덕, 이수열

남산 중앙방송국 시절부터 '청남회' 라는 아나운서들의 친목모임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우리 모임의 역사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찬선 전 KBS 이사를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배덕환이 행정을 맡았던 친목단체 '아나운서동우회'가 그 전신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 3월, 제2대 황우겸 회장의 주도 아래 '한국아나운서동우회'가 출범했다. 강찬선 명예 회장, 임택근, 전영우 부회장, 박로설, 송영규, 이영렬, 한경희 운영위원, 오남열 감사, 정경래 간사 체제로 본격적인 틀을 갖추어 총 41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
그 후 1996년 3월, 황우겸 회장을 위시해 55명의 회원과 현역 아나운서들도 참여하는 모임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했다. 수석 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맡기로 하고, 임택근 수석 부회장, 전영우, 박중세, 최만린, 이철원 부회장, 최계환, 전응덕, 조병해, 최두현, 한경희, 김인권, 길종휘, 김무중, 김동건, 우제근, 김재영, 김승한, 변웅전, 김재익, 이광주, 정희준, 차인태, 이계진 운영위원, 오남열, 이우백 감사, 김규홍 총무 등으로 진용을 갖춘다.

1997년 제3대 임택근 회장 취임



1997년 5월, 제3대 임택근 회장이 취임(위 사진), 경하기와 근조기를 제작하는 등 단체로서 모양새를 갖추었다. 임원진은 전영우 수석 부회장, 박중세, 최만린, 이철원, 김동건, 변웅전 부회장, 한경희, 김주환 감사, 김규홍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었다.

2001년 제4대 전영우 회장 취임



2001년 5월, 제4대 전영우 회장이 취임해(위 사진) 역대 회장단과 원로 선배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여성 아나운서도 임원진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무총장 체제로 클럽 사무국을 정비했다. 황우겸, 임택근, 전응덕, 최계환 고문, 박중세 수석 부회장, 최만린, 임국희, 이철원, 김동건, 변웅전, 박찬숙 부회장, 김규홍 사무총장, 이계진 부총무, 박민정, 원종배 간사가 임명되었다.

2003년 제5대 박중세 회장 취임

2003년 3월, 제5대 박중세 회장이 책임을 맡아(아래 사진), 황우겸, 임택근, 전영우, 전응덕, 최계환 고문, 최만린 수석 부회장, 임국희, 이철원, 김동건, 변웅전, 박찬숙 부회장, 한경희 감사, 김규홍 사무총장, 이계진 부총무, 박민정, 원종배 간사 체제로 클럽을 운영했다.



2005년 제6대 최만린 회장 취임

2005년 4월, 제6대 최만린 회장이 취임해 4년간 클럽을 이끌었다.(사진) 임원진은 황우겸, 강영숙, 임택근, 전영우, 전



응덕, 최계환, 박중세 고문, 김동건 수석 부회장, 임국희, 이철원, 변웅전, 박찬숙 부회장, 우제근 감사에 김규홍 사무총장과 박민정, 원종배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 11월 23일 사단법인 등록

그리고 김동건 수석 부회장이 적극 나서 사단법인화를 추진, 최만린 회장이 직접 방송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 11월 23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이어 정관을 정비하고 발기인 인감증명을 비롯, 인감 날인한 서류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2005년 12월 15일 법인 설립을 마쳤다.

이에 따라 본 클럽은 매년 2월 말, 방송유관단체 사단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년간의 활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2009년 제7대 김동건 회장 취임



▶취임 축하 외빈 및 고문단과 함께
왼쪽부터 김세영 전 MBC부사장, 박중세, 최계환, 전응덕, 최만린, 김동건, 황우겸, 강영숙, 전영우, 김한중 연세대 총장



▶취임식에서 임국희 부회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2009년 3월, 제7대 김동건 회장이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황우겸, 임택근, 강영숙, 전영우, 전응덕, 최계환, 박중세, 최만린 고문, 변웅전 수석 부회장, 임국희, 김규홍, 박찬숙, 차인태, 이계진 부회장, 김상준 감사, 박민정 사무총장, 황인우, 권혁화 운영위원 체제이다.

지난 2007년, 사단법인화를 계기로 클럽 사무국(김규홍 사무총장과 박민정, 원종배, 황인우, 권혁화 운영위원)에서는 회원 카드를 정리하고, 클럽 정관과 회원 연락처 등을 망라한 주소록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주소가 바뀐 경우가 많아 최근 회원수첩 겸 새 주소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선후배간 결속 다지며

아나운서의 전통 이어가고자 노력

본 클럽의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직 아나운서들의 친목단체로 머물지 않고 선후배 간의 결속을 다지며 아나운서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연말 시행된 '선배가 주는 상' '아나운서클럽상'으로 발전적 개명



▶2009년 방송의 날 기념식장의 KBS 원로 여성 아나운서들



▶변웅전 수석부회장, 이철원, 차인태 부회장, SBS 신입아나운서

그 일레가 정도를 지키며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후배 아나운서들을 격려하기 위해 1991년 연말부터 시행된 '선배가 주는 상'이다. 훗날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확대·재편되면서 상의 명칭도 '아나운서클럽상'으로 바뀌었다. 이듬해인 1992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인 최만린 고문의 예술작품을 상패로 수여함으로써, '아나운서클럽상은 누구나 받고 싶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작년도 '아나운서클럽상'을 받으며 SBS 박상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로서 걸어온 길이 선배님 보시기에 자랑스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안도감이 들

고, 이제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고, MBC 방현주 아나운서는 "재능과 기회를 사회에 잘 돌려 보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김규홍 부회장으로부터 클럽상을 받는 방현주 - 아나운서저널 제공

2003년 '장기범상' 제정

모범적인 언어활동자 단체에 수여

2003년에는 이계진 회원이 장기범 아나운서의 정신을 기리며 쾌척한 1억 원의 기금으로 '장기범상'도 제정되었다. 모범적인 언어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아나운서 및 관련 단체를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한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서 1회 '장기범상'은 KBS 한국어연구회가, 작년 8회에는 평화방송(PBC) '바른말 고운말' 팀과 중국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부가 받았다.

역대 회장 명단	
제1대 강찬선	제4대 전영우
제2대 황우겸	제5대 박중세
제3대 임택근	제6대 최만린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이 걸어온 20년

80년대 후반 아나운서 동우회 - 1991년 3월 한국아나운서동우회 - 1996년 3월 한국아나운서클럽 - 2005년 5월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1991년 '선배가 주는 상' 제정 '아나운서클럽상' 으로 발전적 개명 2003년 장기범상 제정 ... 이계진 회원이 기금 쾌척

아나운서 복지증진 방송문화 발전 도모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아나운서 직종의 육성·지원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방송 관련 종사자, 현역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경력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우리의 목표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전·현직 아나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는 국민이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아나운서 직종의 육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한국의 방송문화 발전·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입니다.

강찬선 초대 회장에 이어 1991년, 제2대 황우겸 회장의 '한국아나운서동우회' 출범



▶1995년 신년 교례회에서 뒷줄 왼쪽부터 김규홍, 한경희, 길종휘, 이광주, 김두석, 김재익, 김승한, 최두현, 박찬숙, 최만린, 오남열, 정경수, 김인권, 김재영, 유필기, 김주환, 박중세, 전영우, 이병열, 김무중, 정경래, 우제근, 최계환, 강찬선, 황우겸, 전응덕, 이수열

남산 중앙방송국 시절부터 '청남회' 라는 아나운서들의 친목모임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우리 모임의 역사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찬선 전 KBS 이사를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배덕환이 행정을 맡았던 친목단체 '아나운서동우회'가 그 전신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 3월, 제2대 황우겸 회장의 주도 아래 '한국아나운서동우회'가 출범했다. 강찬선 명예 회장, 임택근, 전영우 부회장, 박로설, 송영규, 이영렬, 한경희 운영위원, 오남열 감사, 정경래 간사 체제로 본격적인 틀을 갖추어 총 41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
그 후 1996년 3월, 황우겸 회장을 위시해 55명의 회원과 현역 아나운서들도 참여하는 모임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했다. 수석 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맡기로 하고, 임택근 수석 부회장, 전영우, 박중세, 최만린, 이철원 부회장, 최계환, 전응덕, 조병해, 최두현, 한경희, 김인권, 길종휘, 김무중, 김동건, 우제근, 김재영, 김승한, 변웅전, 김재익, 이광주, 정희준, 차인태, 이계진 운영위원, 오남열, 이우백 감사, 김규홍 총무 등으로 진용을 갖춘다.

1997년 제3대 임택근 회장 취임



1997년 5월, 제3대 임택근 회장이 취임(위 사진), 경하기와 근조기를 제작하는 등 단체로서 모양새를 갖추었다. 임원진은 전영우 수석 부회장, 박중세, 최만린, 이철원, 김동건, 변웅전 부회장, 한경희, 김주환 감사, 김규홍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었다.

2001년 제4대 전영우 회장 취임



2001년 5월, 제4대 전영우 회장이 취임해(위 사진) 역대 회장단과 원로 선배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여성 아나운서도 임원진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무총장 체제로 클럽 사무국을 정비했다. 황우겸, 임택근, 전응덕, 최계환 고문, 박중세 수석 부회장, 최만린, 임국희, 이철원, 김동건, 변웅전, 박찬숙 부회장, 김규홍 사무총장, 이계진 부총무, 박민정, 원종배 간사가 임명되었다.

2003년 제5대 박중세 회장 취임

2003년 3월, 제5대 박중세 회장이 책임을 맡아(아래 사진), 황우겸, 임택근, 전영우, 전응덕, 최계환 고문, 최만린 수석 부회장, 임국희, 이철원, 김동건, 변웅전, 박찬숙 부회장, 한경희 감사, 김규홍 사무총장, 이계진 부총무, 박민정, 원종배 간사 체제로 클럽을 운영했다.



2005년 제6대 최만린 회장 취임

2005년 4월, 제6대 최만린 회장이 취임해 4년간 클럽을 이끌었다.(사진) 임원진은 황우겸, 강영숙, 임택근, 전영우, 전



응덕, 최계환, 박중세 고문, 김동건 수석 부회장, 임국희, 이철원, 변웅전, 박찬숙 부회장, 우제근 감사에 김규홍 사무총장과 박민정, 원종배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 11월 23일 사단법인 등록

그리고 김동건 수석 부회장이 적극 나서 사단법인화를 추진, 최만린 회장이 직접 방송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 11월 23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이어 정관을 정비하고 발기인 인감증명을 비롯, 인감 날인한 서류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2005년 12월 15일 법인 설립을 마쳤다.

이에 따라 본 클럽은 매년 2월 말, 방송유관단체 사단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년간의 활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2009년 제7대 김동건 회장 취임



▶취임 축하 외빈 및 고문단과 함께
왼쪽부터 김세영 전 MBC부사장, 박중세, 최계환, 전응덕, 최만린, 김동건, 황우겸, 강영숙, 전영우, 김한중 연세대 총장



▶취임식에서 임국희 부회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2009년 3월, 제7대 김동건 회장이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황우겸, 임택근, 강영숙, 전영우, 전응덕, 최계환, 박중세, 최만린 고문, 변웅전 수석 부회장, 임국희, 김규홍, 박찬숙, 차인태, 이계진 부회장, 김상준 감사, 박민정 사무총장, 황인우, 권혁화 운영위원 체제이다.

지난 2007년, 사단법인화를 계기로 클럽 사무국(김규홍 사무총장과 박민정, 원종배, 황인우, 권혁화 운영위원)에서는 회원 카드를 정리하고, 클럽 정관과 회원 연락처 등을 망라한 주소록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주소가 바뀐 경우가 많아 최근 회원수첩 겸 새 주소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선후배간 결속 다지며

아나운서의 전통 이어가고자 노력

본 클럽의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직 아나운서들의 친목단체로 머물지 않고 선후배 간의 결속을 다지며 아나운서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연말 시행된 '선배가 주는 상' '아나운서클럽상'으로 발전적 개명



▶2009년 방송의 날 기념식장의 KBS 원로 여성 아나운서들



▶변웅전 수석부회장, 이철원, 차인태 부회장, SBS 신입아나운서

그 일레가 정도를 지키며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후배 아나운서들을 격려하기 위해 1991년 연말부터 시행된 '선배가 주는 상'이다. 훗날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확대·재편되면서 상의 명칭도 '아나운서클럽상'으로 바뀌었다. 이듬해인 1992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인 최만린 고문의 예술작품을 상패로 수여함으로써, '아나운서클럽상은 누구나 받고 싶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작년도 '아나운서클럽상'을 받으며 SBS 박상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로서 걸어온 길이 선배님 보시기에 자랑스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안도감이 들

고, 이제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고, MBC 방현주 아나운서는 "재능과 기회를 사회에 잘 돌려 보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김규홍 부회장으로부터 클럽상을 받는 방현주 - 아나운서저널 제공

2003년 '장기범상' 제정

모범적인 언어활동자 단체에 수여

2003년에는 이계진 회원이 장기범 아나운서의 정신을 기리며 쾌척한 1억 원의 기금으로 '장기범상'도 제정되었다. 모범적인 언어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아나운서 및 관련 단체를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한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서 1회 '장기범상'은 KBS 한국어연구회가, 작년 8회에는 평화방송(PBC) '바른말 고운말' 팀과 중국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부가 받았다.

역대 회장 명단	
제1대 강찬선	제4대 전영우
제2대 황우겸	제5대 박중세
제3대 임택근	제6대 최만린

Zoom - in 전응덕 고문



“늘 변신하는 삶을 꿈꾸지요”

- 아나운서에서 저널리스트로

문: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현재 중앙일보, 한국방송광고단체연합회, (사)한국아나운서클럽 등에서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여유롭다고 할까요? 늘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요즘은 집 근처 북한산에 올라 건강도 관리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 방송계에는 어떻게 입문하셨습니까?

답: 1954년에 장교로 복무하다 군에서 제대하고 그 해 부산에서 방송사 입사시험을 봤죠. 부산KBS 아나운서 겸 기자직에 지원을 했는데, 전쟁이 끝난 무렵이어서 경쟁률이 100:1에 달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합격을 했고 언론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죠. 그 때는 PD도 없었고 아나운서나 기자가 전문적으로 분류된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후 1959년에 국내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인 부산문화방송이 개국할 때 적을 옮기게 됐습니다.

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애착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답: 예전에는 아나운서를 '방송의 거울, 방송의 꽃'

언론, 광고, 경영 분야에서 활약해 온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전응덕 고문이 작년 11월 30일 4·19혁명 기념사업회로부터 '4·19혁명 정의상'을 받았다.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해 민주창달, 사회정의구현,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많은 후배 아나운서들이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전문 진행자로서 활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참 자랑스럽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첫 직업이라서 더 정이 갑니다. 아나운서클럽 모임이 있을 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꼭 참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문: 3.15 의거와 관련해 큰 상을 여러 번 받으셨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나요?

답: KBS가 국영방송인 시절이니까 그 때는 언론의 자유라는 게 사실상 없었죠. 1960년 3월 15일에 대대적인 부정 선거가 있었고 마산에서부터 시위 소식이 들어왔습다. 그 때 저는 부산MBC 보도국장으

3.15 부정선거 시위 보도로 건국포장에 이어 4.19 혁명 정의상 수상 영역 확대 바람직 - 보도, 교양, 오락에서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로 있었고, 시위 현장 소리도 녹음해서 보도하고 생중계도 했죠. 경남 경찰국장이 주조정실에 권총을 차고 들어와 위협하기도 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다. 언론이 민심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는 두려울 게 없는 법이거든요.

문: '4.19혁명 정의상'은 고문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큰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국익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좋은 평

것. 전 고문은 작년 4월에도 건국포장을 받았으며 2001년에도 3.15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2년 발간된 그의 저서 '이 사람아 목에 힘을 빼게' 서문에 나타나 있듯, 과거나 현재에 얽매이기보다 늘 변신하는 삶을 지향해 온 전 고문을 만나 보았다.

가를 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송구스럽습다. 당시에 저널리스트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1961년 서울MBC 보도국장으로서 발령이 났고 1964년 동양방송(TBC) 개국과 함께 자리를 옮겨 11년간 언론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가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됐으니까요.

문: 끝으로 후배 아나운서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면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돼야 합니다. 5년 뒤를 바라보며 자신을 가다듬고 전문성을 갖춰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나운서의 연예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저는 그 현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도나 교양프로그램에 간혀 있던 아나운서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만 내가 성공했을 때 주변 후배들을 챙기는 정을 나누는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늘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유혜진 객원기자

수필 무너지지 않는 기쁨



· 1973년 KBS 17기 입사
· 1990년-1994년 SBS 아나운서실장 역임
· 제17, 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저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산촌일기' 등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느꼈던 감격은 “내가 대한민국의 ‘아나운서’가 되다니!!”였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이 많고 행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꼽으라면 주저 없이 ‘시골 청년 이 아무개가 아나운서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객관성이 있는 ‘필기시험’ 방식을 뺀 ‘실기 평가’ 심사라든지, 면접관들이 ‘인터뷰’하고 평가해서 합·불합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한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할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1973년 가을 어느 날, KBS 정오뉴스의 전국 뉴스 말미에 강찬선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를 듣던 순간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 그렇게 출발한 나의 방송 인생은 지금까지의 나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일이 돼버렸다.

그런데, 과연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야. 말하자면 그런 자랑스러움에 어울릴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야.

생명이 꺼져가는 병상에서도, 빛나는 배우시절에 입던 멋진 양복을 입원실 벽에 걸어 놓고 ‘나는 영화 배우였다!’는 추억에 젖어 생을 마감했다는 명배우 김진규 선생의 일화가 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마지막 ‘이별콘서트’에 나와 휠체어에 앉아 자신이 작곡한 곡을 부르는 가수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던 로맨틱스트 길옥윤 선생의 마지막 모습도 생생

이 계 진
(사)한국아나운서클럽 부회장

하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시던 날까지 가난하고 쓸쓸했지만 당신이 대한민국 아나운서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고 장기범 선배님의 모습이 새삼스럽다.

우리는 가끔, 은막을 주름잡던 노배우가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산책하다가 노련한 카메라맨의 뷰파인더에 잡힌 모습을 보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그의 외모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단정한 은발에 빛나는 안경, 깔끔한 재킷에 웃음 띤 얼굴이었던 기억이다.

모두가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쁨’을 지킨 분들이라는 데 인간적 감동을 느낀다.

나는 아나운서 선후배 모임인 ‘아나운서클럽’ 모임에 나가 ‘처음 뵈는’ 아득한 날들의 대선배의 모습에서 그런, 무너지지 않는 기쁨을 느끼고는 펍 행복한 기분이었던 적이 있다. 이런 마음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팬)들에게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날 단장을 든 노신사가 명동거리를 걸어가고

시골 청년에서 대한민국의 아나운서로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노년 살고파

있었다고 하자. 단장은 들었으나 꼳꼳한 자세로, 재킷에는 하얀 포켓치프를 꼽고, 미소 지으며 거리를 걸어갈 때 몇몇 사람들이 멀리서 손짓을 하며 소곤거린다. “아, 저분이 그 야구 중계 하던 아무개 아나운서지... 와~ 멋지시다!”

나는 요즘 깊은 산골에 살면서 가끔 나의, 아니 우리 아나운서들의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곤 한다. 1973년 가을 어느 날 KBS 정오 뉴스의 말미에 들려오던 아나운서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의 ‘환청’이 지금도 가끔 느껴지므로 해서...

|알림|



지난 2월 23일 정기 총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각 방송사 신입 간부와 신입 아나운서 소개, 이해옥 편집위원의 회보 발행에 대한 경과보고, 정홍숙(전 MBC) 회원의 시낭송 등으로 새 봄의 활기가 넘치는 호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호칭 생략, 입장 순)
이혜옥, 박민정, 안운숙, 황인우, 전영우, 채영신, 배덕환, 김동건, 박종세, 이후재, 이성화, 전찬희, 정연호, 권혁화, 김규홍, 정홍숙, 김상준, 정경래, 최만린, 이형균, 양진수, 고광수, 변순복, 한선교, 원종배, 성연미, 이계진, 그리고 SBS 손범규, 김주우, 유혜영, 김민지, KBS 김성수, 김관동, 이규원, 성기영, 정용실, tbs 이은정, 김병훈, MBC 강재형, 김원태, FEBC 김성운, 윤재희, 양현민, 남현용

다음 정례 모임은 오는 5월 18일(수) 저녁 6시 30분, 여의도 홍우빌딩 3층 중식당 ‘열빈’ (02-783-3838)에서 열립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는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소중한 운영기금입니다. 3월 10일 현재, 연회비 납부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칭 생략, 납부 순)
이장우, 원창호, 최선규, 이해영, 이후재, 전영우, 차기정, 우제근, 이계행, 정희준, 박종세, 이병열, 성연미, 김순환, 성선경, 이선미, 황인우, 박영웅, 최평웅, 장금자, 이현숙, 안운숙, 채영신, 배덕환, 정홍숙, 김상준, 정경래, 양진수, 고광수, 정영희, 최화숙, 박민정, 민창기, 이형균, 이해옥
아울러 지난 1월 성연미(전 KBS) 회원이, 그리고 2월 정기 총회 자리에서 한선교 회원이 각각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연회비와 후원금을 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